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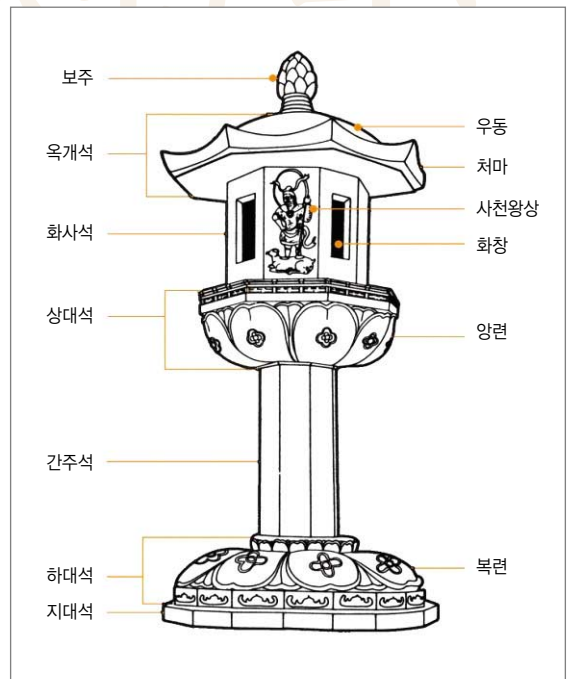
석등[石燈] - 간주형(竿柱形) 석등 ②

쌍사자 간주석(竿柱石) 석등에 이어, 이번 호에는 간주(竿柱) 형태가 팔각 기둥인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하며, 석등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호에서도 밝힌 것처럼, 석등은 크게 세 부분 또는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조와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석등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경우, 등불을 넣는 불집인 화사석(火舍石)을 중심으로 아래의 기대석(基臺石)과 윗부분인 옥개석(屋蓋石)으로 구분된다. 다섯 부분으로 나눌 경우는 기대석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는데, 대좌(臺座)를 이루는 하대석(下臺石), 간주가 되는 중대석(中臺石), 그리고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상대석(上臺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셋 또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석등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세부 명칭들이 더해지는 것이다.

세 부분이든 다섯 부분이든 석등의 양식을 파악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꼽는다면 화사석과 간주석, 그리고 대좌 부분의 형태를 살피는 것이다. 이 주요 부분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전체 석등의 양식이 파악되며, 시대적 변화 양상도 파악될 수 있다. 석등의 명칭 또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화사석의 경우는 기본평면의 꺾인 면수,



석등의 구조와 명칭

사진1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앞 石燈]// 통일신라// 높이 297cm// 국보 17호//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2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화사벽(火舍壁)의 사천왕상//[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3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報恩 法住寺 四天王 石燈]// 통일신라// 높이 390cm// 보물 15호//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4 장흥 보림사 대적광전 앞 석등[長興 寶林寺 大寂光殿 앞 石燈]// 통일신라(870년경)// 높이 312cm// 국보 44호//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즉 팔각, 육각, 사각 등의 형태와 화창(火窓)이 뿔려있는 면수, 그리고 화창 이외의 나머지 면을 가리키는 화사벽의 장식 및 조각상 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구별하게 된다. 화사석의 기본형은 초기 건축에서는 팔각으로 사면에 화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화사벽으로 되어 있었지만, 더러 이 화사벽에 보살이나 사천왕상과 같은 조각이 새겨진 경우도 있다.

화사석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팔각을 전형으로 하고 있으나 시대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고려 초기에 육각, 그리고 고려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각이 유행되어 온 것으로 대별되고 있다. 아래쪽 간주석 또한 팔각기둥을 전형으로 하고 있으나, 이외에 고복형(鼓腹形)이나 이형(異形) 간주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복형은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팔각기둥 대신 안정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장고(長鼓)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형 간주들에는 앞에서 살펴본 쌍사자형 외에도 단사자형, 번룡형(翻龍形), 인물상형, 원형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팔각기둥의 간주형 양식이 잘 표현된 석등의 예를 들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사진 1, 2**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과, **사진 3**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사진 4** 장흥 보림사



사진 9



사진 10

대적광전 앞 석등, **사진 5** 합천 백암리 석등, **사진 6**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사진 7**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사진 8** 부여 무량사 석등, **사진 9**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이 있고, 고려시대의 것으로 **사진 10** 나주 서성문 안 석등 등을 들 수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조선총독부(조선고적도보)4,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 중앙일보사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5 합천 백암리 석등[陝川 伯岩里 石燈]// 통일신라// 높이 253cm// 보물 381호//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90-3//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6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淸道 雲門寺 金堂 앞 石燈]// 통일신라// 높이 258cm// 보물 193호//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7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南原 實相寺 百丈庵 石燈]// 통일신라// 높이 250cm// 보물 40호//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8 부여 무량사 석등[扶餘 無量寺 石燈]// 통일신라// 높이 250cm// 보물 233호//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9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慶州 佛國寺 大雄殿 앞 石燈]// 통일신라// 높이 315cm// 경북 경주시 진형동 15-1//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10 나주 서성문 안 석등[羅州 西城門 안 石燈]// 고려 1093년// 높이 327cm// 보물 364호//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정영호 감수, 《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